

基礎教育의 發達過程과 發展論的 假說의 提起

朱 鶴 中

目 次

- I. 序 言
- II. 植民地 基礎教育의 發達과 書堂의 位置
- III. 基礎教育發達에 대한 두 假說의 提起
- IV. 要約 및 結論

I. 序 言

60年代 이후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과 國家의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發展要因으로서 特정한 屬性을 지닌 풍부한 人的資

源을 들고 있다¹⁾. 이러한 人的資源의 特性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教育水準, 勤勉性, 成就動機, 人和能力, 訓練可能性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教育水準 특히 基礎教育을 받는 것이라고 하겠다²⁾. 그 이유는 教育을 통하여 다른 人的資源의 屬性이 啓發되고 培養될 수 있으며 基礎教育을 통하여 보다 높은 教育水準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經濟社會發展과 近代化의 進化過程을 주도하는 人的資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基礎教育의 懷妊期間에 따른 先行性和 教育의 世襲의 影響을 고려하면 基礎教育은 우리의 受難期였던 20世紀 初期에 벌써 着根되었어야 했다. 이에 대한 學界의 通說의인 見解는 基礎教育의 發達이 日本統治下에서 있었고 이 때문에 日本의 植民地統治가 우리의 近代化에 有害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見解가 支配的인 理由는 私見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 듯하다.

첫째는, 日帝가 植民地統治를 美化하기 위하여 植民地地下의 教育發達을 그들의 중요한 貢

筆者：韓國開發研究院 先任研究委員

- 1) Edward Mason,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0, pp. 342~343.
- 2) 여기에서 基礎教育이란 6年間の 初等教育을 의미하지 않고 機能的으로 文盲을 탈피하는 데 필요한 教育을 下限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이 教育的 基盤으로서 職業訓練, 社會教育 등을 통하여 人的資源形成이 가능하고 또한 個人의 性向에 따라 보다 더 높은 教育을 받을 수 있다.
- 3) P.H. Clyde, *A History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Far East*, N.Y.: Prentice Hall Inc., 1937, p. 444. Edward S. Mason, et al., *op. cit.*, pp. 79~81.

獻으로서 國內外에 널리 弘報한 데서 온 우리의 無意識的 容認이다⁴⁾. 둘째로, 오늘날 우리의 教育學者和 史學者 가운데 大多數가 西歐式 教育에 익숙하기 때문에 傳統的 書堂教育의 重要性和 寄與를 輕視 또는 看過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解釋된다⁵⁾.

이 論文의 目的은 이러한 通說的인 見解에 대하여 正面으로 異議를 提起하여 日帝時에 發展論上 중요한 意義를 지닌 基礎教育의 發達은 朝鮮時代에 設立되었던 書堂이 대단한 寄與를 함으로써 歷史的으로 獨自的인 自生性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오늘날 開途國發展論에서 큰 意味를 賦與하고 있는, 이른바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basic needs approach)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두 가지 發展論의 假說을 提起코자 한다. 이러한 歷史的 假說을 제기함에 있어서 커다란 制約은 書堂과 같이 植民地統治下에 非正規部門(informal sector)에 관한 統計資料의 不충분과 부족한 資料의 偏倚이나, 부족한 可用資料를 가능한 한 이용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既存資料와 文獻의 조심스러운 解釋으로 補完하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發展論의 假說을 제기함에 앞서 일반적으로 朝鮮總督府의 統治 아래 初等教育이 폭발적 量的 擴大를 이룬 것으로 認識

되고 있는 데 대하여 비판적으로 檢討하고 失國에 따른 教育制度의 變更으로 非正規教育機關으로 다루어진 傳統的 基礎教育機關인 書堂의 位置를 考察함으로써 基礎教育에 대한 書堂의 歷史的 功獻을 再吟味하고자 한다.

II. 植民地 基礎教育의 發達과 書堂의 位置

1. 教育의 量的 擴大의 虛實

植民地統治下에 朝鮮總督府가 대내외적으로 公表한 전형적인 教育統計資料는 [圖 1]과 같은 것이다⁶⁾. 이 圖表에 의하면 비교기간인 1910년부터 1935년 사이에 크게 변동이 없는 人口指數나 상당한 증가를 나타낸 財政 및 公共團體의 歲出總額 등의 指數에 비하여 公私立 普通學校 在學生數와 高等普通學校 在學生數를 나타내는 指數는 각각 基準年度의 약 37배와 24배로서 가장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統計에 조심스러운 讀者라면 이 圖表가 統計의 虛構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事例로서 指數의 濫用임을 투시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요컨대 基準年度의 絕對值의 規模에 따라 指數는 그 指數가 나타내는 意味 이상으로 圖表上 과장된 인상을 줄 수 있음을 讀者는 留意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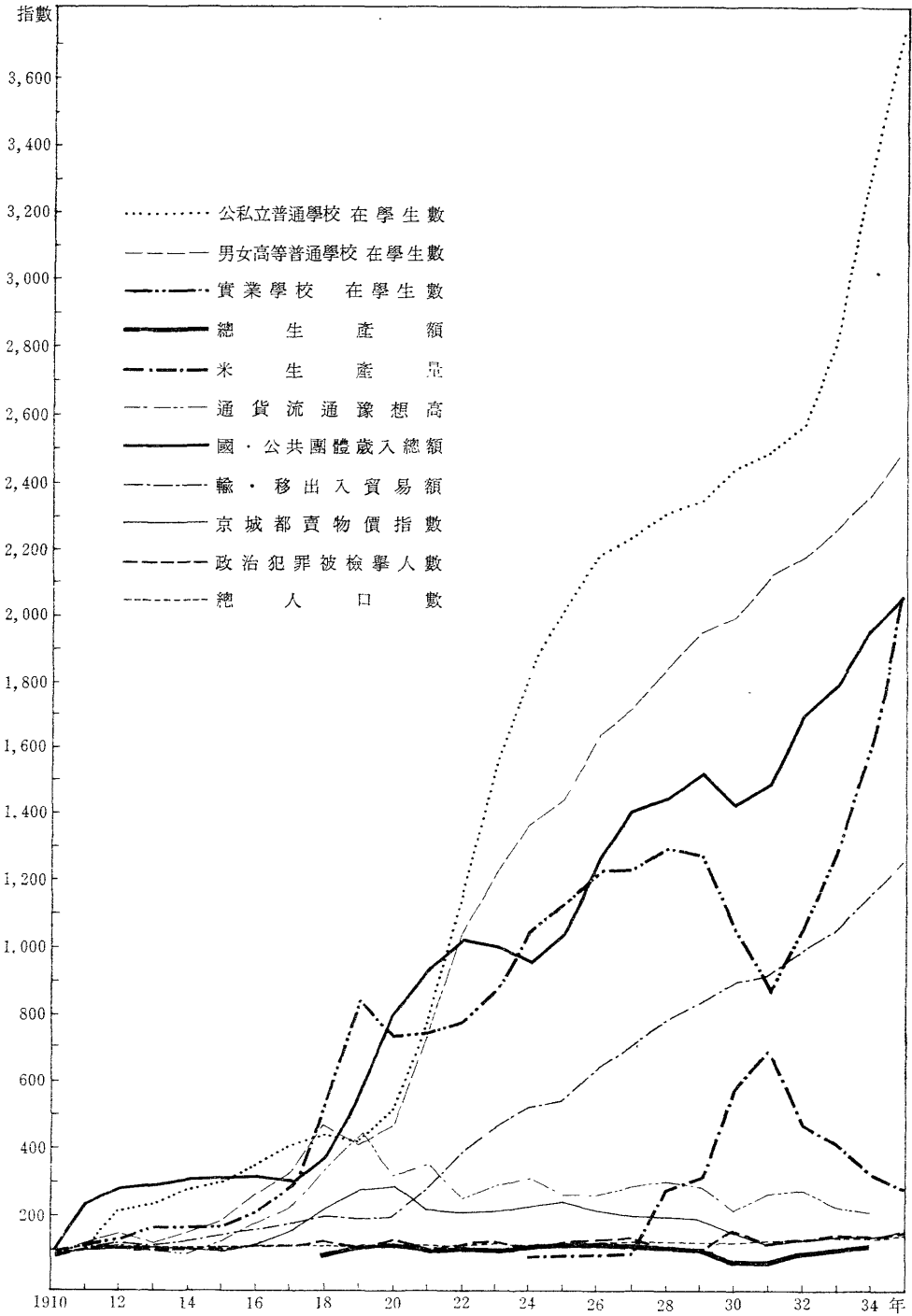
植民地統治下에 있어서 이러한 初等教育의 폭발적 量的 擴大의 虛實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統計에 쓰여진 用語의 定義와 관련하여 期間中 學制의 變更과 教育政策의 變化 등을 包括的으로 고찰하면서 統計가 지

4) 第2次 世界大戰前에 發刊된 文獻 가운데 우리 立場을 비교적 바로 본 著述은 아마도 Andrew J. Grajdanzev, *Modern Korea*, N.Y.: The John Day Co., 1944 정도로 생각된다.

5) 通說的인 國史나 教育史冊에 書堂에 대한 言及은 近代의인 教育機關의 發達에 대한 것에 비하여 크게 浮刻되어 있지 않다. 例로서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67, 第15章 第5節과 吳天錫, 『韓國新教育史(上)』, 1964, pp. 227~230 參照.

6) 이러한 統計資料의 부분별한 容認이 전술한 바와같은 日本의 植民地統治가 우리의 近代化와 60년대 이후의 高度成長에 대해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論據의 하나이다.

〔圖 1〕 1910~35年間 主要社會指標の變化



년 含蓄의 意味를 吟味할 需要가 있으며 이 資料의 밑에 加추어진 非正規教育機關으로서 書堂에 관한 통계와 그 意義가 바른 角度에서 照明되어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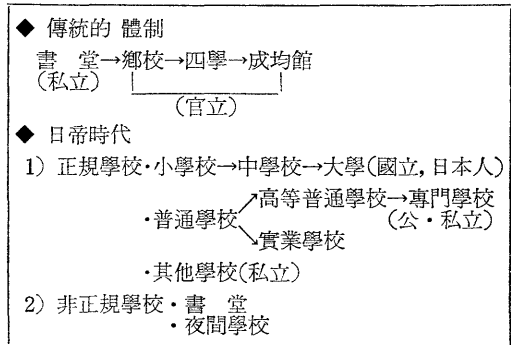
가. 學制의 變更과 書堂教育 實態

먼저 書堂에 관한 統計가 이러한 教育統計에서 제외된 것은 今世紀初에 우리나라의 基礎教育이 正規와 非正規의 二重構造의 樣相을 띠었기 때문이며 이는 결코 우연한 歷史의 事實만은 아니다. 즉, 失國과 더불어 朝鮮時代의 學制는 폐지되고 朝鮮總督府의 새로운 學制가 導入됨으로써 教育的 過渡期가 展開되었으나 朝鮮總督府의 立場에서는 傳來의 教育制度와 機關의 存在를 전혀 무시하고 初等教育의 發達을 統計化하였던 것이다.

合併 이후 1918年 書堂에 대한 規制와 1932年 이른바 換骨奪胎의 教育革新으로 書堂이 크게 萎縮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書堂이 계속 존속하여 基礎教育에 있어서 二重의 構造를 유지해 오면서 書堂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基礎教育機關으로서 存續한 이유는 朝鮮時代의 學制와 그 후의 學制 變更과 書堂의 設立 主體에서 찾아야 하겠다. 즉 朝鮮王朝 500年의 教育制度는 <表 1>과 같이 書堂→鄉校→四學→成均館으로 이어지는 學制로서 基礎教育機關인 書堂이 私學인 반면에 上級教育機關인 鄉校 이상의 教育機關은 官學이었다.

朝鮮總督府는 우리나라에 거류한 日本人에게 本國과 같은 小學校—中學校—大學校의 教育制度를 援用하였으나 철저한 差別教育政策을 추구하여 學校名稱부터 다른 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專門學校에 이르는 教育制度를 우리 國民에게 適用하였고 이외에도 正規教育

<表 1> 殖民地統治下의 教育制度의 變化



機關으로서 各種 學校를 認可하였다. 合併 이후 朝鮮時代의 官學은 바로 統廢合되어 存續되지 않았고 私學인 書堂은 계속 發展, 存續하였으나 總督府 教育當局은 이를 의도적으로 輕視하려고 하였으므로 [圖 1]의 基準年度의 數値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물론 非正規 基礎教育機關의 規模가 작으면 경시되고 제외될 수 있는 것이 國家統計機關이 흔히 이용하는 便法으로 正當化될 수 있다. 그러나 書堂의 경우 이는 결코 看過할 수 없는 規模였다. 朝鮮總督府의 資料에 의해서 1912년부터 1942년까지 書堂의 數, 教師數, 在學生數, 普通學校 在學生에 대한 對比率을 要約하면 <表 2>와 같다. 이 表에 의하면 1912年 당시 임의로 보고된 書堂數와 教師數와 學生數는 각각 16,540個所와 16,771名과 141,604名에 이르고 있으며 普通學校 在學生數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表에 의하면 1922년까지 書堂의 數와 學生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이후 점차 減少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2년까지 3,500餘個所의 書堂에서 15萬名 以上の 學齡兒童이 基礎教育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統計를 바로 解釋하기 위하여 두 가

〈表 2〉 書堂數와 在學生의 變化推移(1912~42年)

(단위 : 名, %)

年 度	書		堂	普通學校 在學生數	書堂在學生數比 率(普通學校在 學生=100)
	數	教師數	學生數		
1912	16,540	16,771	141,604	44,639	317
1913	18,238	18,435	169,077	51,826	326
1914	20,268	20,807	195,689	59,397	329
1915	21,358	21,570	204,161	63,854	320
1916	23,441	23,674	229,550	73,575	312
1917	25,485	25,831	259,531	84,283	308
1918	24,294	24,520	264,835	90,768	292
1919	23,369	23,613	260,975	89,288	292
1920	24,030	24,185	275,920	107,201	257
1921	25,482	25,621	292,625	157,219	186
1922	24,192	24,531	298,067	236,031	126
1923	21,057	21,699	280,862	317,661	88
1924	19,613	20,285	256,851	374,210	69
1925	18,510	19,101	231,754	407,292	57
1926	16,873	17,390	208,310	438,990	47
1927	16,089	16,568	196,838	451,011	44
1928	15,069	15,509	189,260	462,538	41
1929	14,957	15,469	191,672	471,400	41
1930	11,469	11,908	162,247	489,934	33
1931	10,036	10,550	150,892	499,160	30
1932	9,208	9,594	146,901	513,786	29
1933	8,630	9,007	142,668	561,292	25
1934	7,529	7,964	148,105	636,334	23
1935	6,843	7,408	153,634	714,209	21
1936	6,209	6,876	161,774	—	—
1937	5,944	6,543	169,999	861,389	20
1938	5,681	6,211	172,786	1,006,700	17
1939	5,293	5,832	172,456	1,166,642	15
1940	4,686	5,245	164,507	1,331,785	12
1941	4,105	4,755	158,320	1,600,965	10
1942	3,504	4,097	150,184	1,694,820	9

資料 :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度)

지點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書堂에 관한 絶對的·相對的 數値에 含蓄된 意味이며, 둘째는 書堂의 盛衰에 影響을 미친 政策의 背景이다. 먼저 絶對的 統計數値에 含蓄된 意味로서 書堂에 관한 統計는 普通學校의 數値에 비하여 報告義務가 없었음에 비추어 反日感情으로 인한 意圖的인 報告不履行으로 過少集計

의 可能性이 컸다. 즉 書堂은 1918年 書堂規則이 發效되기 前에는 設立까지도 申告事項이 없으며 아무런 支援을 받지 않은 殖民地 教育當局에 대하여 學事報告를 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漏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普通學校 學生數에 대한 書堂學生數의

對比에 있어서 누락으로 인한 後者의 過小評價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總計의 對比는 修學年限이 긴 正規教育機關인 普通學校에 유리하게 作用할 것으로 解析된다. 요컨대 보통학교의 修學年限이 書堂보다 길기 때문에 累計인 在學生數의 직접적인 對比는 큰 의미가 없고 修學年限을 감안한 學年別 平均學生數의 對比가 더 정확한 比較가 된다. 普通學校의 修學年數는 學制上 나타나 있으나 불행히도 書堂의 平均修學年數에 관한 자료가 없어 推定조차도 할 수가 없어 對比率을 조정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가령 書堂의 平均修學期間이 普通學校의 반으로 假定한다면 초기에 있어서 書堂의 상대적 비중은 統計에 나타나 있는 數値의 2배인 6배 이상이 됨은 물론 1926年頃까지도 書堂이 普通學校와 같은 量的 規模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겠다. 또한 卒業生數와 新入生數의 흐름을 감안할 때 1912년부터 1920년까지 나타난 普通學校 學生數의 增加 특히 1910年代 初盤의 그것은 큰 意味를 부여할 수 없고, 1920年代初와 1940年代 前後의 普通學校 學生數의 증가가 有意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書堂의 盛衰와 教育政策의 變化

書堂學生數의 增減과 普通學校 學生의 增減은 植民地統治當局에 의하여 조작될 수 있는 代替的인 基礎教育서비스에 대한 需要의 變化라는 뜻에서 朝鮮總督府의 基礎教育政策의 變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으므로 그 脈絡에서 解釋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植民地 教育

政策의 큰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朝鮮總督府의 教育政策은 통설적으로 세 기간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⁷⁾. 第1期는 合併 이후 1922년에 이르는 期間으로서 總督府가 제정한 教育令을 定着시키기 위한 規制政策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規制政策을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大韓帝國時代에 이미 近代教育의 振興이 시도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 전반의 反應이 總督府 當局이 놀랄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一例로서 1908年 私立學校 設立令이 公布되자 1910년에 그 設立許可가 2,250件에 달하였다⁸⁾. 이러한 現象은 愚民政策을 주도하여야 할 統治當局의 立場을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제정한 教育令으로써 植民地 教育制度를 確立하는 規制的인 政策에 주력하였다.

이 기간에 日本人의 移住를 유인하는 政策의 一環으로 本國에서와 같은 日本人을 위한 教育機關을 우선적으로 設立하는 한편 우리 國民의 강렬한 教育熱을 收容하지 않고 教育機會를 制約하였다. 1918년에 普通學校 3面 1校와 高等普通學校 1道 1校의 設置를 내용으로 하는 8個年計劃을 作成하는 한편 敎課內容의 監督, 日本語 必須科目化, 廢鎖權의 留保 등을 내용으로 하는 「書堂規則」을 1918년에 시달하여 전통적이며 抗日運動의 한 據點인 書堂에 대한 規制를 강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實業簡易學校를 대폭 育成함으로써 우리 國民을 技能人力으로서 활용하려는 侵略的인 意圖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1920年代初의 普通學校 學生數의 有意한 增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3·1運動 이후에 있어서 植民地 教育政策은 總督府統治政策의 흐름과 脈을 같이하여 文化

7) 渡部學, 『近世朝鮮教育史研究』, 東京, 雄山閣, 1969, 第1章.

8) 前掲書, p. 49.

的 柔和政策으로 변화하여 中日戰爭이 발발한 1938년까지 지속되었다. 1918년의 3面 1校의 普通學校設立의 8個年計劃을 조기달성한 이후 1927년에 1面 1個校를 목표로 普通學校施設을 확대하려는 8個年計劃을 確定하였으나 이에 대한 潜在的 教育需要는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總督府의 豫算配定이 없어 크게 부진하였고 이計劃이 1936년에 이르러 完成되었다.

명분으로 보면 이러한 植民地 教育政策은 日本의 植民地統治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第3國의 學者의 눈에는 대단히 人道主義的인 施策으로 보일 것이나 우리 國民이 歷史的으로 지내왔던 강렬한 教育熱을 충족시키기에 크게 未洽한 가운데도 教育에 대한 投資財源은 擴大하지 아니하고 1932년부터 이들의 이른바「換骨奪胎의 革新」을 企圖함으로써 書堂을 포함한 私立教育機關을 公立教育機關으로 吸收·統合하는 政策을 구사하였으며⁹⁾ 이러한 생색 위주의 政策에도 한계가 있자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2年制 1教室 1教師의 簡易學校의 設立을 擴大하는 정도로 教育機會의 擴大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에 書堂에 대하여는 1929년부터 書堂規則을 더욱 강화하여 書堂 設立에 道知事의 認可를 얻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政策的 變化를 전제하면 <表 2>에 나타나 있는 1920年代 後半부터의 書堂의 沈滯現象과 1930年代에 있어서 普通學校 學生數의 急增現象에 대한 이유가 類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38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期間은 戰時體制로의 轉換에 따라 우리 민족의 獨自性을 말

소하고 그들의「皇國臣民化」하는 日本帝國의 末期現象을 나타내었고 戰爭目的으로 教育까지 歪曲을 서슴지 않은 가장 불행한 時期였다. 이에 따라 書堂은 물론 抗日의 기미가 있는 私立 中·高等 教育機關이 허다하게 廢鎖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公刊된 統計資料가 있는 1942년까지 全國에 3,500餘個所의 書堂이 15萬餘名의 學童을 教育시키면서 存續하였다는 것은 書堂教育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示唆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書堂이 植民地統治下의 基礎教育의 빠른 發達을 促進한 것은 물론, 解放以後 經濟活動人口를 구성한 既成世代에게 基礎教育機會를 제공하였다. 光復以後 高等教育을 포함한 教育機會의 폭발적 擴大를 이룬 根源은 朝鮮總督府의 基礎教育制度의 導入과 그 發達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植民地統治時代보다 더 오랜 歷史를 통하여 着根, 發達되어 있었던 書堂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西歐의 教育制度和 機關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전통적 基礎教育機關을 看過하고 우리 基礎教育의 뿌리를 普通學校에서 찾는 것은 西歐의 醫學이 導入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醫學이 없었다는 것과 같이 그릇된 主張이라고 하겠다.

2.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

이상과 같이 植民地統治下의 基礎教育에서 初期에는 큰 主流와 後期에는 두 脈의 하나를 이룬 書堂이 과연 基礎教育機關으로서 적합하였는가에 대하여 여기서 檢討해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視角으로 검토하려는 것은 書堂의 設立形態와 財源調達, 教課內容 및 基礎教育

9) 前掲書, p. 77.

機關으로서 評價이다.

茶山の 時代에 이미 “大約四五村必有一書齋”라고¹⁰⁾ 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던 書堂은 그 설립형태로 보아 네 가지 類型으로 구분된다¹¹⁾. 첫째, 敎育에 뜻을 둔 訓長이 個人的으로 창설한 서당으로서 學者와 落鄕한 前職官吏가 生業의 方便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마을의 有志가 개인적으로 자녀敎育을 위하여 訓長을 초청하여 書堂을 설립한 경우로서 敎育機會를 直系子女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친척이나 친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시켰다. 셋째, 마을의 有志가 學契를 형성하여 서당을 설립하고 學契 가입자의 子女나 다른 子女들을 어떠한 義務에 대한 合意를 전제로 하여 서당에 다니게 하였다. 끝으로 한 마을의 村契가 중심이 되어 서당을 설립하여 學齡兒童에게 基礎敎育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립형태의 분류는 創堂時點에서 본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과 마을의 형편에 의하여 支援形態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書堂運營의 財源은 그 設立形態로 보아 예상할 수 있듯이 訓長의 주도로 설립된 경우 金品形態의 謝禮, 한 有志가 설립한 경우 設立者의 基金 및 出捐資產의 果實, 學契의 경우 學契의 賦金과 果實, 村契의 경우 住民의 分擔金品, 이 이외에도 有志나 宗教機關의 寄附 등이 그 財源을 이루었다. 여기서 留意하여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서당의 財政的 支援

이 빈약하여 訓長의 경제적 형편은 俗談을 남길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으나 國庫의 支援 없이 民間主導로 個個人的 動機誘發과 參與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本論文의 主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당의 敎課內容이 基礎敎育으로서 적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書堂敎育은 “八歲入小學 十五入大學”이라 하여 官學인 鄕校, 四學, 成均館으로서의 進學準備機關과 書堂敎育을 거쳐 獨學으로서 鄕試와 科擧에 응시할 수 있는 基礎敎育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서당의 역할은 植民地統治와 더불어 변질하여 日帝初期에는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小學, 大學, 中脩 등의 敎科書를 중심으로 敎育되었다. 書堂은 이와 같은 漢字中心의 敎育뿐만 아니라 朝鮮時代의 指導階層이 訓長으로 변신하여 愛國과 獨立을 강조하는 民族敎育을 실시한 것으로 類推된다. 그러므로 朝鮮總督府는 申告制였던 書堂設立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1918年 書堂規則을 제정하여 許可制로 변경하는 한편 廢止權을 留保하고 日本語를 포함시키는 등 敎課內容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20年代에 들어와 서당의 敎課內容은 日本語, 算數 등과 같은 科目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書堂敎育의 敎課內容은 人的資源形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文盲退治의 기능은 물론 상당 수준의 基礎敎育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植民地統治下의 敎育機關으로서 書堂에 대한 평가는 相反된 두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否定的 見解는 물론 統治의 立場에서 있던 日本系 學者와 總督府 當局者로서 書堂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¹²⁾. 즉, 書堂은 극히 前近代의이며 傳統的인 敎育

10)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第65條에 의하면 「郡縣每一鄕領數十村 大約四五村必有一書齋 齋坐一夫子都平丈 領兒童數十人」이라 하고 있다.

11) 이 부분은 日本武藏大學 渡部學 教授의 研究에 크게 의존하였다.

12) 本多庸一, 『朝鮮敎育說』, 『東邦協會會報』, 第40號, 1900年 11月. 朝鮮總督府, 『朝鮮統治三年間成績』, 1914年 1月. 大野謙一, 『朝鮮敎育問題管見』, 京城, 1936年

機關으로서 敎課內容이 儒敎에 국한되고 일상 생활과 괴리된 敎課內容이며 한 사람의 訓長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계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른바 新式敎育에 비한 書堂에 대한 否定的 見解는 물론 그 妥當性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입장에 깔린 植民地統治의 底意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 경계되어야 하겠다.

書堂은 전래의 敎育機關으로서 主權國家로서 朝鮮時代의 文化的 유물일 뿐만 아니라 訓長은 學科 이외에도 民族의 正統性과 反日 및 抗日의 思想敎育까지 서슴지 않았으므로 식민지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敎育이 마땅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 否定的 見解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은 基礎敎育이 필요로 하는 時宜性에 비추어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敎育기회의 다른 代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愚民으로 몰지 않는다면 肯定的인 見解에 동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見解로서 國內外 專門家가 당시에 주어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與件으로 보아 書堂은 敎育全般 특히 基礎敎育에 있어서 큰 機能을 擔當하였던 것으로 肯定的인 評價를 하고 있다¹³⁾.

筆者는 이러한 書堂의 肯定論에 세 가지 점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의 우리나라의 형편은 80% 가량 農民이며 貧困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表 3>과 같이 敎育費負擔이 대단히 가벼웠고 地域的으로 근접할 수 있는

곳에 基礎敎育機關이 설치되어 많은 國民이 뜻이 있으면 基礎敎育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書堂은 敎育機關으로서 朝鮮總督府로부터 規制를 비교적 적게 받아 피압박자로서 自我意識을 보존케 하였으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높은 敎育熱을 포함한 儒敎의 文化圈의 文化的 遺産을 승계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끝으로 統計的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으나 正規敎育機會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書堂敎育을 거쳐 正規基礎敎育機關에 편입하거나 書堂敎育을 통하여 檢定試驗을 거쳐 上級學校에 進學한 사람이 있을 것인바 이들에게 進學機會를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Ⅲ. 基礎敎育發達에 대한 두 假說의 提起

이상과 같이 볼 때 植民地統治下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基礎敎育을 포함한 전반적인 敎育發達은 결코 朝鮮總督府의 施惠的인 政策的 努力의 結果가 아니었으며 朝鮮時代에 私學인 書堂을 基礎敎育機關으로 하고 官學으로서 鄉校와 四學과 成均館에 이르는 敎育制度로서 이미 높은 敎育水準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어느 村落이라도 書堂이란 學校가 있었으며 당시의 유럽 어느 나라만큼 敎育水準이 높았다 라는 大韓帝國의 宋 駐와싱톤大使의 지적을 언더우드博士는 단순한 愛國的 表現이 아니라 事實로 認定할 정도였다¹⁴⁾.

이러한 높은 敎育水準의 史實과 상술한 바

13) 田中登作, 『亞細亞諸國敎育一斑』 東京, 普及會, 1892年. 山道襄一, 『朝鮮半島』, 京城, 日韓書房, 1911年. J.S. Gale, *Korea in Transition*, Toronto, W. Briggs, 1909, p. 46. Helen K. Kim,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31.

14) H.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Y.: International Press, 1926, p. 174.

와 같은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의 位置와 役割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의 基礎教育發達에 대하여 두 가지 發展論的 假說을 여기에 提起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基礎教育發達의 自生性(sui generis)이며¹⁵⁾ 둘째, 1970年代 中반에 대두된 基本生活要件 또는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이¹⁶⁾ 우리의 基礎教育發達에 이미 성공적으로 採擇되었다는 것이다.

1. 自生性的 假說

學問과 教育崇尚에 대한 우리 민족의 價値와 意識은 역사적으로 어느 時代에 形成되었는지 앞으로 歷史 및 言語學者의 研究가 必要한 部分이다. 그러나 男性을 지칭하는 言語上의 表現을 우리는 「書房」이라 하여 왔고 아녀자가 男便을 「서방님」이라고 불러 왔다. 그 語源은 둘 다 글방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男子라면 글방에서 學問生活을 하여야 된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民生의 수준과 村落의 繁榮을 가능하는 基準으로 우리 先祖는 「三好聲」을 중시하였다. 즉 낮선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개짖는 소리와 건강한 아이가 우는 소리와 서당에서 책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잘 사는 마을이라고 첫 印象을 形成하였을 정도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言語와 常識에까지 書堂은 중요한 位置를 역사적으로 점하여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經世濟民을 위한 牧民指針書에도 學問과 教育崇尚의 기록이 적지 않다. 그 예를 들면 李元翼(1547~1634)의 『梧里政要』에 의하면 “出官翌日 即 謁聖鄉校”라고 하여 신임 사또는 就任 다음날 鄉校에 나갈 것을 明示하였고¹⁷⁾ 18世紀에 발간된 것으로 추측되는 著者 未詳의 『治郡要訣』에는 “有讀書山堂”이라고 하여 고을에는 반드시 책을 읽을 수 있는 書堂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丁茶山(1762~1836年)의 『牧民心書』도 “大約四五村必有一書齋”이라 하여 有書堂을 牧民의 要件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⁸⁾. 이리하여 19世紀末에 있어서 全國에 書堂數가 3萬個所에 달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¹⁹⁾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敎育과 國民敎育水準에 대한 宋大使의 評價가 내려진 것으로 推測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유구한 전통적 敎育熱은 亡國의 恥辱으로 한층 더 激化되었다. 抗日과 獨立運動의 한 수단으로서 敎育이 重要시되었으며 “敎育不興 生存不能”을 標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傍證으로서 大韓帝國時 敎育改革의 一環으로 1908年 私立學校設立令을 公布함에 따라 1910년에 2,250個 校가 政府의 認可를 받았으며 그 중에 62%

15)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自生性的 可能性에 대하여 假說을 提起한 것은 데이비드 스텐버그(David Steinberg)이다(參考文獻 參照). 經濟發展에 대하여는 이 假說을 提起하는 것은 더한 研究가 必要하나 基礎敎育發達에 대하여는 그 歷史性으로 보아 보다 더 妥當性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ILO, *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A One-World Problem*, N.P.: Praeger, 1976. Paul Streete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 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March, 1977. 朱鶴中, “再分配의 成長戰略과 基本生活要件의 充足”,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研究叢書 49, 韓國開發研究院, 1982.

17) 李元翼, 『梧里政要』, 16世紀中葉, 著者未詳인 『先覺』(18世紀末)에 의하면 그 崇學校에 관한 部分에 『梧里曰 出官翌日 即 謁聖鄉校 而春秋釋崇及校中之事 著意爲之 釋崇必親參 凡儒生必禮待儒業勳獎之事 亦留心』라고 하고 있다.

18) 丁若鏞, 前揭書 參照.

19) 渡部學, 前揭書, p. 541에 引用된 松高春一郎의 推計임.

가 以北五道에서 申請된 것이었다²⁰⁾. 이러한 우리 國民의 높은 教育熱의 表出은 朝鮮總督府의 警覺心을 자극하여 植民地統治의 초기에 規制約인 教育政策을 추구하는 한 原因이 되었다.

우리 國民의 높은 教育熱은 朝鮮總督府가 시도한 1918年의 3面 1校設立 8個年計劃의 조기달성을 需要側面에서 促進하였으며 이러한 教育機會를 얻지 못하였던 어려운 家庭形便에 대한 勤勞靑少年은 勞動夜間學校와 私設講習會를 통하여 教育機會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²¹⁾. 朝鮮總督府가 1927年에 1面 1校를 목표로 8個年計劃을 마련하여 그 財源配分에 인색하였던 1930年 普通學校學齡兒 就學率 23%의 수준에서 普通學校 入學難과 過密教室이 이미 社會的 問題로 대두될 정도였다. 이러한 狀況 아래 社會輿論을 의식한 朝鮮總督府當局은 窮餘之策으로 1932年부터 基礎教育에 있어서 이른바 「換骨奪胎的 革新」을 主導하며 書堂을 포함한 私立學校를 公立學校로 轉換하는 政策을 채택하는 한편²²⁾ 1936年부터 이른바 1校1教室, 1教師2年制의 簡易學校를 農村地域에 신설,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분명한 것은 朝鮮總督府의 基礎教育 擴大政策이 우리 國民의 歷史的 自生性이 있는 높은 教育熱을 受容

하는 데 대단히 未洽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制約的인 基礎教育施設의 擴大도 전통적인 書堂과 抗日救國의 일환으로 설립된 私立學校를 公立學校化함으로써 간교하게 政策의 效果를 거두려 하였던 것이다.

2. 基本需要充足的 接近方法

植民地統治下에 自生的인 基礎教育機關으로서 그 機能과 역할을 다한 書堂을 근대적인 發展論으로 再評價해 보면 이른바 基本需要의 接近方法이 理論的 體系가 확립되기 이전에 채택되어 成功을 거둔 事例라고 解釋할 수 있다. 근대적 發展理論으로서 基本需要의 接近方法은 國民의 基本需要充足에 정책적 最優先 順位를 두고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되 方法論的 으로는 독특한 特徵을 강조하고 있다²³⁾.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 가장 貧困한 階層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基本需要를 機能的 으로 충족시키는 傳達體系(delivery system)와 供給管理(supply management)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對象되는 國民의 자발적인 參與로서 自生的인 制度와 주어진 資源을 活用 하여 基本需要를 실효성 있게 경제적으로 충족시키려는 成長爲主의 發展戰略에 대한 하나의 反省으로서 體系化되었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書堂의 設立過程, 財源調達, 敎課內容, 地域의 分布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全人教育과 人力開發에 가장 중요한 基礎教育을 基本需要充足的 接近方法이 지니는 특징인

①國民의 參與(popular participation)와 上 向式 方式(bottom-up approach)

②內在的 機構(indigenous institutions)를

20) 渡部學, 前掲書, 1969, p. 49.

21) 渡部學, 「朝鮮における '副次' 的 初等教育施設(中)」 『武藏大學論集』, 第8卷 第5號.

22) 渡部學, 「朝鮮における '副次' 的 初等教育施設(下), 一朝鮮近代教育理解のための領域づけへの提言一」, 『武藏大學論集』, 第8卷 第6號, pp. 66~75에 의하면 1930年當時 調査된 288個校 중 241個校가 최종적으로 公立普通學校가 되었는데 이중에 144個校의 一般私立 各種學校, 27個校의 私立普通學校, 25個校의 書堂 등 이 이에 包含되었다고 함.

23) Paul Streeten. *op. cit.*, 朱鶴中, 前掲書.

활용하여 작은 費用으로

③農村의 貧困階層에 이르기까지 基礎教育機會의 近接性を 보장해 주면서

④필요한 最低水準의 基礎教育을 효율적이며 实效性 있게 提供한 데에서 이러한 解釋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初期의 基礎教育發達에 決定的 역할을 담당한 書堂이 基本需要의 接近方法을 이용하였다는 發展論의 假說에 論據를 더하기 위하여 각 特徵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基礎教育에 대한 書堂의 寄與는 철저한 國民의 參與와 上向式 方式에 의한 것임은 朝鮮時代의 學制와 書堂의 設立 및 財源調達過程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자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假說로 제기한 우리 國民의 높은 自生的 教育熱에 뒷받침되어 朝鮮時代에 걸쳐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은 官이 設立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訓長 또는 有志인 個人이나 學契 또는 村契의 형태로 住民의 共同努力로 자발적인 設立과 運營이 維持되었다. 또한 基礎教育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個個人의 수준(grass-root level)에서 書堂教育이 실시되고 官이 設立한 鄉校와 四學과 成均館으로 연결되는 上向式 教育制度는 오늘날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下向式인 政府의 開發意志로 주도되는 基礎教育 普及이 그 수혜자인 庶民層의 의견으로 所期의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비추어 극히 對照的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재래의 教育機構와 制度로서 새로운 機構와 制度의 도입을 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植民地統治下の 書堂을 抗日과 獨立運動의 表現으로서 합병 이후 초기에는

〈表 3〉 教育機關別 教師 및 學級當 學生數와 平均經常教育費의 比較

(1927年)

	小 學 校	普通學校	其他學校	書 堂
學生 100名當 教師數	2.8	1.9	3.8	8.4
學 級 當 學生數	45.2	54.2	32.6	12.2
學生 1人當 經常教育費	52圓	23圓	33圓	8圓

朝鮮總督府가 개설한 普通學校보다 書堂을 選好하는 경향까지 나타내 보였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경험으로 보아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投資所要가 問題되어 基本需要의 접근에서 지대한 단위비용이 강조되는 데 書堂을 통한 基礎教育은 植民地統治下の 어떠한 基礎教育機關의 所要費用보다도 저렴하였다. 〈表 3〉에 의하면 1927年 당시 日本人을 위한 小學校의 學生1人當 平均經常費用은 年 52圓이 소요되고 우리 學生을 위한 普通學校의 學生 1人當 平均經常費用이 年 23圓이 소요된 데 비하여 書堂은 그 平均經常費가 學生 1人當 8圓이 소요된 것으로 集計되어 書堂教育이 여기서 규정한 基礎教育을 제공하는 데 얼마나 經濟的이었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비교된 平均經常費支出은 投資支出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投資費에 관한 統計가 있어 이를 포함시킨다면 既存建物을 이용한 보통 1教師 1教室인 書堂의 經濟性은 더욱 돋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면에 흔히 教育의 質을 나타내는 指標로 활용되는 學級當 學生數와 教師·學生比率는 書堂이 훨씬 낮아서 당시 上級學校 進學을 위한 教育內容의 不適合性이라는 약점을 제외하면 좋은 民族教育을 받을 수 있는 素地는 갖추고 있었다고 보겠다.

農村地域에서 教育·保健醫療 등 基本서비

스의 需要充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階層이 近接하지 못하는 制約이다. 朝鮮總督府가 3面 1校의 目標을 달성한 후 1面 1校의 目標達成이 어렵게 되자 1930年代에 들어와 農村에 1教師 1教室의 簡易學校를 대폭 新設한 것도 教育施設에 대한 農村兒童의 近接性을 提高하기 위한 着眼이었다.

만약 書堂이 都邑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면 대다수 國民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書堂이 都邑은 물론 農村地域의 마을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地理的 近接性이 높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教育費用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經濟的 近接性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書堂教育의 特性이야말로 19世紀末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教育水準이 유럽과 같은 수준에 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끝으로 書堂教育이 필요한 最低水準의 基礎教育은 물론 그 이상을 提供하였다는 점이다. 基礎教育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글에 눈을 뜨고 기본적인 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教育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書堂의 敎課過程과 그 水準은 漢文文化圈에서 文盲을 면하는 것은 물론 『童蒙先習』, 『通鑑』 등의 履修로 상당한 素養을 갖추는 수준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朝鮮總督府의 書堂規制는 日本語의 履修까지 强요하였기 때문에 外國語까지 배울 수 있는 機會가 주어졌던 것이다.

書堂教育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遺産으로

24) 여기에서의 假定은 書堂이 존속하지 않았을 때 在來의 우리의 道義가 日本의 그것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아 道義教育에서 더 큰 斷切과 空白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우리 國民에게 남겨진 것은 學問崇尚의 儒敎的 傳統이 유지된 사실이라고 하겠다. 假想的으로 書堂이 완전히 閉鎖되고 일시에 대체될 수도 없으나 普通學校로 일시에 대체되어 教育制度上的 斷絶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植民地 統治當局과 日本式 教育에 대한 抵抗으로 基礎教育의 大衆化를 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基礎教育의 歷史的 空白期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제기된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을 書堂이 圓용하였다는 假說 이외에도 또 하나의 假說로서 書堂을 통한 儒敎的 道義教育이 國民의 人和能力과 勤勉性 등 發展造成的 價値觀과 意識構造를 涵養 및 存續시켜 주지 않았나 하는²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課題를 提起해 두겠다.

IV. 要約 및 結論

今世紀初 우리나라에 있어서 基礎教育의 發達過程은 역사적으로 朝鮮500년에 걸쳐 뿌리를 내려 존속해 왔던 書堂의 역할과 寄與를 감안하여 再檢討되어야 하겠다. 우리의 國權喪失과 더불어 朝鮮總督府에 의한 學制改編으로 再來의 初等教育機關이었던 書堂이 非正規教育機關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대체한 普通學校가 우리의 傳統的인 教育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書堂이 1920年代初까지 普通學校 在學生數 이상의 兒童에게 基礎教育의 機會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光復을 맞이할 때까지 有意한 水準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史實에 입각하여 人的資源形成에 커다란 意味를 갖는 基礎教育은 그 先行性에 비추어 6.25

動亂 이후의 戰後復舊와 1960年代初 이후의 高度成長을 이룩한 今世紀初 20~30年間の 出生世代에 대하여 書堂과 各種學校에 의하여 基礎教育이 폭 넓게 提供된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 같은 基礎教育에 대한 書堂의 寄與를 輕視하는 傾向은 日本統治當局의 片跛的인 教育政策과 弘報活動 등에 의한 人위적인 影響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影響에 젖어 있는 것은 基礎教育의 教育的 機能을 朝鮮總督府가 導入한 教育的 制度圈內에서 보는 偏狹과 우리의 傳統的 機構를 再發掘, 再評價하려는 努力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물론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은 近代的 視覺으로 볼 때 訓長主導로 敎課內容이나 敎育方法 등 여러 側面에서 問題는 지니고 있었으나(事實上 어느 나라나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問題點을 지니지 아니한 敎育制度를 실현시킨 事例가 없다) 當時에 우리에게 주어진 經濟的, 社會的 與件, 특히 日本의 植民地統治下에 教育的 制度的 斷切과 時差가 뒤따르는 이 特殊狀況 아래 書堂은 1920年代까지 어떤 基礎教育機關보다도 그 역할을 主導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더 우기 이를 일시에 代替할 수 있다. 새로운 敎育機關의 擡頭는 강력한 植民地統治의 行政力으로서도 期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書堂은 光復 이후 우리나라의 經濟·社會發展을 이끈 既成世代로 하여금 敎育받은 人的資源으로의 形成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世代의 敎育熱이 世襲的인 影響을 발휘하여 光復 이후에 폭발

적인 敎育의 量的 擴大를 招來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基礎教育을 받은 人的資源의 形成을 통하여 20世紀 後半에 있어서 우리의 經濟·社會發展에 크게 寄與한 書堂에 대하여 發展論的 視角에서 볼 때 두 가지 假說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基礎教育發達의 歷史的 自生性이며, 둘째는 基礎教育機關으로서 書堂이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basic needs approach)을 採擇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우리 國民에게 朝鮮時代 이전부터 500年 이상에 걸쳐 높은 敎育熱이 우리의 言語와 意識에 뿌리박혀 있었을 뿐 아니라 李朝末에 2~3萬個所에 달하는 書堂이 私立으로 設立되어 國民에게 基礎敎育機會를 폭넓게 提供하였으며 많은 國民이 文盲의 範疇를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民이 自發的으로 設立한 書堂數는 明治維新에 의하여 開花하기 전에 日本의 유사한 基礎敎育機關이었던 「寺子屋」의 數보다 많았고 두 나라의 人口規模를 조정하여 單位人口로서 比較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을 정도였다²⁵⁾.

그러므로 우리의 높은 敎育熱은 歷史的 自生性이 있으며 당시의 基礎敎育은 결코 朝鮮總督府의 人道主義的 施惠에 의하여 發達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朝鮮總督府는 傳統的 書堂을 規制하고 그들이 西歐에서 導入한 敎育制度를 새로이 移植하고 擴大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준은 우리 國民의 教育的 潛在需要를 充足시켜 주지 못할 정도였다.

둘째로, 書堂을 통한 基礎敎育은 1970年代 中盤 이후에 開發途上國의 發展戰略으로서 注目되고 있는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이 제시하고 있는 特徵을 나타내고 있는 點이다. 이

25) 石川謙 博士의 研究에 의하면 日本의 近世末 約 3千萬의 人口에 11千餘個所의 寺子屋를 추정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人口 13百萬에 16千餘個所(실제는 더 많은)로 推定하고 있다. 渡部學, 前掲書, 1969, pp.83~84 參照.

開發戰略이 採擇되어 基本需要의 일부를 地域的으로 充足시킨 成功事例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있으나 汎國家的으로 한 가지의 基本需要를 成功的으로 充足시킨 事例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朝鮮時代를 통한 書堂은 基礎教育의 供給體系가 그 受惠者인 一般國民의 自發的인 參與로서 受益者負擔原則으로 上向式 民間主導로 이루어졌으며 既存施設인 內在的 機構를 이용하여 立地的 經濟的 近接性이 確保되어 必要水準 이상의 基礎教育을 제공함으로써 基本需要充足의 接近方法이 地近特性을 살려왔다. 물론 이에 대한 參考文獻과 資料가 현재 부족하여 충분한 實證的 分析으로 立證할 수 없으나 앞으로 더 研究, 檢討되

어야 할 發展論的 假說로서 提起될 만하다.

끝으로 이러한 歷史的 考察을 試圖한 底意는 發展過程에 있어서 意識과 制度와 같은 長期的 要因은 현실적 經濟·社會의 움직임을 決定하는 短期的 變數의 變化速度가 다른 것을 輕視하며 흔히 우리의 歷史的 斷絶로 인하여 그 뿌리를 看過하여 우리의 것을 바로 찾지 못하는 우리의 學問的 傾向에 대하여 하나의 反省을 提起하려는 것이다. 本論文이 이러한 底意를 說得力있게 나타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經濟·社會發展을 보는 視角을 어떻게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의 提起만이라도 하였다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 吳天錫, 『韓國新教育史(上)』, 1964.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1967.
 李元翼, 『梧里政要』, 16世紀中葉.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朱鶴中, 「再分配의 成長戰略과 基本生活要件의 充足」,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82.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京城, 1936.
 渡部學, 『近世朝鮮教育史研究』, 東京, 雄山閣, 1969年
 _____, 「朝鮮における ‘副次’ 的 初等教育施設(中)」, 『武藏大學論集』, 第8卷 第5號
 _____, 「朝鮮にすける ‘副次’ 的 初等教育施設(下)——朝鮮近代教育理解のための領域づけへの提言——」, 『武藏大學論集』, 第8卷 第6號
 本多庸一, 「朝鮮教育論」, 『東邦協會會報』, 第40號, 1900.
 山道襄一, 『朝鮮半島』, 京城: 日韓書房, 1912.
 田中釜作, 『亞細亞諸國教育一斑』, 東京: 普及會, 1892.
 朝鮮總督府, 『朝鮮統治三年間成績』, 1914.
 Clyde, P.H., *A History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Far East*, N.Y.: Prentice Hall, Inc., 1937.
 Gale, J.S., *Korea in Transition*, Toronto, W. Briggs, 1909.
 Grajdanzev, Andrew J., *Modern Korea*, N.Y.: The John Day Co., 1944.
 Kim, Helen K.,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 Doctorate Dissertation Submitted to Columbia Univ., 1931.
 ILO, *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A One-World Problem*, N.Y.: Praeger, 1976.
 Mason, Edward S.,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0.
- Steinberg, David I.,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Sui Generis or Generic?*, Washington, D.C.: USAID, AID. Evaluation Special Study, No.6, Jan. 1982.
- Streeten, Paul,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 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March 1977.
- Underwood, H.H., *Modern Education in Korea*, N.Y.: International Press, 1926.